

##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틀비의 저항 대상 연구\*

이 광 진\*\*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의 한 분야인 조직행동론의 여러 이론 중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이론'(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LMX이론)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LMX이론은 조직 내에 새로운 구성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도록 돕거나 새로운 업무(혹은 문제)를 기존 구성원에게 맡김으로써 안정화시켜갈 때 작동하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이론이다.

변호사인 화자의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바틀비와 새로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은 이 이론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환경이다. 본 논문은 LMX 이론의 적용을 통해 바틀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조직의 리더인 화자의 LMX 시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 이 논문작성에 꼭 필요한 경영학의 이론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박원준 교수와 자료 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숭실대학교 도서관 김나름 사서께 감사드린다.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이는 비즈니스, 조직의 거부임을 밝힌다. 또한 화자가 바틀비를 유령으로 자주 묘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결국 바틀비는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를 발전시켜가는 미국사회가 상실해가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며 화자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긴 하지만 바틀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보여주듯이, 결국은 사회의 변화조류에 편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서론

“멜빌은 이 작품들로 『피아자 이야기』(*Piazza Tales*) (1856)를 출판했다. …… 이 중에 『종탑』(“The Bell Tower”), 『돈 베니토 세레노』(“Don Benito Cereno”), 『마법의 섬』(“The Encantadas”)은 어둠과 재로 가라앉기 전 잿불이 순간적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멜빌의 문학적 매력의 마지막 빛을 보여준다.”<sup>1)</sup> 초기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생전에 세간의 호평은 물론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멜빌(Herman Melville)의 작품들을 재평가하고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선구자들 중 한 사람인 위버(Raymond M. Weaver)는 멜빌의 단편들을 평가하면서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sup>2)</sup>에 대해서는 멜빌의 문학적 재능이 빛나는 작품 중 하나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위버의 평가는 1960년대까지 일부 학자들에게 이어져서 “『베니토 세레노』만이 예술적으로 완전한 승리이며” 『바틀비』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농담”(an uneasy, labored joke)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sup>3)</sup>

하지만 대체적으로 192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바틀비』에 관심을

1) Raymond M. Weaver (1921), *Herman Melville: Mariner and Mystic*, New York: Geroge H. Doran Company, pp. 347-348.

2) 이후 『필경사 바틀비, 월가 이야기』는 『바틀비』로 표기.

3) Richard Harter Fogle (1960), *Melville's Shorter Tale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12.

보여 거의 매년 이 작품에 대한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특히 1965년에 미국에서 이 작품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이 작품만을 다루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sup>4)</sup> 이런 추세는 해외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만 살펴봐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이 작품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 세 편, 2013년에 다섯 편, 2014년에 네 편,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만 두 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을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이런 학자들의 큰 관심은 아마 이 작품이 작가 자신의 “헤아릴 수 없고 신비스러운” 세계, “단일한 세계이지만 인간 정신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독특한 세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sup>5)</sup> 다시 말하면 다른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이 작품은 작가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이 작품이 포함된 『피아자 이야기』가 일부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할 만큼 동시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진 이유일 것이다.<sup>6)</sup> 멜빌의 작품이 가지는 모호함과 더불어 멜빌 자신이 일차 자료, 특히 『바틀비』와 관련한 일차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작품의 해석을 더 어렵게 한 주요한 원인이다.

짧지만 난해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작품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바틀비라는 인물의 실제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서, 바틀비와 화자 중 주인공을 누구로 봐야 할 것인지, 이 작품을

4) Howard P. Vincent, ed. (1966), *Melville Annual 1965, a Symposium: Bartleby the Scrivener*,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5) Fogle (1960), p. 3.

6) Harrison Hayford et al.d (1987), “Historical Note,” in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1939-1860*, ed. Harrison Hayford, et al., The Writings of Herman Melville,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pp. 497-499.

상징으로 해석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등 작품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갈래로 나뉘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이 논의들이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여전히 다양한 이견들로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이 작품의 난해함과 모호성이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지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멜빌의 거대하고 깊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역사학, 법학, 심리학, 의학, 교육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고 의미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 중에는 지젝, 들뢰즈와 아감벤과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이론가요 철학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바틀비」 해석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높다.)

멜빌의 텍스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접근은 하나의 텍스트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어쩌면 저자 자신이 그것을 의도했을지도 모른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sup>8)</sup> 들뢰즈가 언젠가 텍스트를 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언급한 것처럼 작품자체의 해석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론 자체의 논리를 전개해 가는 전체 과정에서 텍스트를 “단순히 작은 톱니”(merely a small cog)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7) 윤교찬(2013), 「부정과 중단의 미학—아감벤의 바틀비론」, 『영어영문학』 26.1; 정진만(2012),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나는 부정성」, 『비평과 이론』 17.1; 황혜령(2008), 「'표현-기계'로서의 들뢰즈의 문학론: '바틀비-기능'과 'K-기능'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0.3; 한광택(2014), 「바틀비, 근대성의 부정변증법」, 『19세기 영어권 문학』 18.2.

8) Kwangjin Lee (2014), “What Does Bartleby Prefer Not To?: A Reinterpretation of Bartleby's Resistance with Organizational Theories,”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8. 2, pp. 175-176.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9)</sup>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라는 표현의 의미가 등장인물들에게 “딱 잘라 거절하는”<sup>10)</sup> 명백한 부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기도 한다.<sup>11)</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다양한 접근은 일부 학자들의 해석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틀비』와 같이 난해하고 깊이 있는 작품의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반면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작품 내적/외적인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연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폴리(Barbara Foley)의 연구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폴리는 『바틀비』의 역사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다. 작품에 등장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그녀는 이 작품이 애스터 플레이스 폭동(Astor Place Riot)을 작품의 근저에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품에 시대착오적인 기술(記述)이 상당히 있음을 발견한다. 폴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멜빌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며 “멜빌이 『바틀비』를 상상을 통해 창작하는 과정에서 1840년대 초의 사건들과 이후, 아마도 1850년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혼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리에 의하면 비록 경제적인 후원자였던 자신의 장인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멜빌은 이 작품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도덕적 비겁함에 대한 멜빌의 경멸의 표현이면서

9) Daniel W. Smith (1997), “‘A Life of Pure Immanence’: Deleuze’s ‘Critique Et Clinique’ Project,” in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ed. Gilles Deleuz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pp. xi-lvi.

10) Herman Melville (1987),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In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1839-1860*, eds. Harrison Hayford, Alma A. MacDougall, G. Thomas Tanselle and others, 13-45.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p. 25.

11) Giorgio Agamben (1993), *The Coming Community*, ed. Sandra Buckley, Michael Hardt, and Brian Massumi, trans. Michael Hardt,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5-38.

동시에 그러한 특성을 자신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맑스주의적 해석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sup>12)</sup>

폴리의 역사주의적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틀비』에 시대착오적인 면들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면, 왜 동시대에 나온 서평들에서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멜빌이 의도한 바를 동시대인들이 쉽게 간파하고 이해했기 때문인지에 대해 폴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비판이라면, 왜 주인공이 육체노동자나 공장노동자가 아니라 당시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의 첨병으로서, 브루주아 계급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속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블루칼라와는 확연히 구분되었던 화이트칼라 노동자, 즉 사무원(clerk)을 내세워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틀비』를 둘러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이 작품의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폴리의 연구와 같은 작품 외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작품이해에 필수적인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작가 자신의 개인 사/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틀비』에 내재한 작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연구들 중에서 이 작품이 사무실을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경영자(리더, 보스, 매니저)와 피고용인(직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12) Barbara Foley (2000), "From Wall Street to Astor Place: Historicizing Melville's 'Bartleby,'" *American Literature* 72.1 p. 88, p. 91, p. 103.

13) Brian P. Lusky (2010), *On the Make: Clerks and the Quest for Capital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p. 2.

에 초점을 둔 연구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다시 말하면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조직 내에서 보스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라는 측면을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산업화, 도시화의 큰 틀과 착취하는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관계를 토대로 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비즈니스 조직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과 자본주의와 착취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마치 경영학과 경제학의 접근법이 상이하면서도 상보적인 관계인 것과 같다. 경제학적(그 대부분은 맑시즘적) 접근이 거시적 관점과 자본/노동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해석의 한 틀을 제공하는 반면, 경영학적 접근은 보다 미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리더와 구성원 간, 혹은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복합적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경제학적 접근법이 간과하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작품은 경영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sup>14)</sup> 본고에서는 경영학의 이론들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 LMX이론을 활용한 「바틀비」 해석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심히 염려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저작한 대작 들인 『모비딕』(*Moby-Dick, or the Whale*)과 『삐에르』(*Pierre, or the Ambiguities*)를 출판한 직후인 1852년 여름부터 시작된 긴 휴식 이후 멜빌이 다시 저작을 재개한 뒤 이듬해 겨울에 처음으로 출판한 작품이 「바틀비」였다. 이 소설은 고급문학 잡지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풋넘스 월간지』(*Putnam's Monthly Magazine*)에 두 번 연재된 (적어도 출판 순서로 볼 때) 멜

14) Lee (2014), pp. 173-189 참조.

빌의 최초의 단편 소설이다.<sup>15)</sup> 문단에 데뷔한 이후 줄곧 장편소설만을 집필해 온 저자가 이 작품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단편을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한 것을 고려하면 『바틀비』는 그의 문학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sup>16)</sup>

그런데 『바틀비』가 가지는 의의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적 세팅이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역시 그의 전 작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1846년에 출판된 그의 최초의 소설 『타이피족: 폴리네시아인들의 삶 엿보기』(*Typee: A Peep at Polynesian Life*)부터 시작하여 『모비딕』까지의 모든 작품들은 생전에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해양 소설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바다와 뱃사람들의 삶이 중심이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바다를 떠난 첫 소설이 육지에서의 남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삐에르』였고 그 다음에 나온 소설이 바로 『바틀비』였다. 우선 이 단편에서 특이한 것은 바틀비라는 인물이다. 그는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해 불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인데 그의 특이함의 원인들 중에는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혹은 그룹)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인물은 멜빌의 작품 중에서 『바틀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중심인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바틀비와 같은 인물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무』(*Omoa*)에서 화자의 옆에서 병으로 죽은 선원이나<sup>17)</sup> 선원들 사이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던 잭슨(Jackson)의 미움을 받아서 “일종의 선내의 이스마엘과 같아서 단 한 명의 친구나 동료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레드번(Redburn)은 바틀

15) Hayford et al. (1987), pp. 481-487.

16) A. W. Plumstead (1966), “Bartleby: Melville’s Venture into a New Genre,” in *Melville Annual 1965, a Symposium: Bartleby the Scrivener*, ed. Howard P. Vincent,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7) Herman Melville (1847), *Omoa: A Narrative of Adventures in the South Seas*, New York: Harper & Brothers, pp. 65-66.



비와 비슷한 면을 지닌 인물이라 하겠다.<sup>18)</sup>

하지만 「바틀비」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들 상호간의 관계이다. 이 작품은 뉴욕이라는 도시의 중심부, 미국에서 급격히 발전해 가는 산업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의 한 사무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멜빌이 『삐에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사실과 「바틀비」가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잡지에 연재될 것을 상정하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런 변화의 원인을 단순히 독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멜빌의 의도를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오류일 수 있다. 오히려 '월가에 위치한 사무실과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만들어 가는 이야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멜빌이 「바틀비」를 통해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월가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들은 경제학적/맑스주의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접근법이 유효하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고찰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틀비」는 크게 두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대부분은 뉴욕 월가의 법률사무소 내부이며, 후반부에 '툼즈'(The Tombs)라고 불리는 교도소이다. 이 작품에서 톰즈는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외부의 묘사나 등장인물들의 사무실 외부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무실, 특히 사무실 내부의 공적 인간관계가 작품 전체의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은 작품해석에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최근 「바틀비」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베버링겐(Armin Beverungen)과 던(Sephen Dunne)의 연구는 연구자들이 경영

18) Herman Melville (1849) *Redburn: His First Voyage*, New York: Harper & Brothers, 85.

학자들로서 비즈니스 조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의 해석에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자들이 문학을 접근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 외에 작품 해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sup>19)</sup> 왜냐하면 경영학에는 몇 개의 큰 분야들 중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이 있는데 이 분야는 (비즈니스)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조직심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학제적 접근으로서 이 소설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이다.<sup>20)</sup>

『바틀비』는 1849년 여름 멜빌이 뉴욕 변호사였던 그의 동생인 앨런(Allan Melville)과 함께 머물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sup>21)</sup> 비록 바틀비라는 주인공의 모델의 출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때의 경험이 이 소설의 근간을 형성한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이 작품은 멜빌의 치밀한 사실적 관찰에 기반을 둔 작가적 상상의 결과물이다.

『바틀비』의 화자는 변호사이다. 동시에 그는 뉴욕의 월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떠오르던 사무직(clerk)의 하나였던 필경사 두 명과 잔심부름하는 소년을 직원으로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이기도 하다. 변호사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진취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수완을 잘 발휘하여 쉽게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한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이때 고용된 직원이 바로 바틀비이다. 사무실에서 세 번째 필경사로 고용된 바틀비는 한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고용주인 화자를 만족시키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는 특이한 말과 함께 급기야 사무

19) Armin Beverungen and Stephen Dunne (2007), “I’d Prefer Not To’: Bartleby and the Excesses Of Interpretation,” *Culture & Organization* 13.2, pp. 171-183.

20) 조직행동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이광진(2012), 『문학과 경영학: 마크 트웨인의 『아더 왕궁의 커벳티컷 양키』에 나타난 동기 전쟁』, 『영미문학교육』 16.2, pp. 166-169 참조.

21) Hayford et al. (1987), p. 464.

실에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에 대해 묘한 감정을 느끼는 화자는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사무실에서 절대 떠나려 하지 않는 바틀비를 피해서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 후 바틀비는 결국 감옥으로 쫓겨 가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줄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면서도(혹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은 바틀비가 그 특유의 거절 표현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 순간과 그 직후 그가 보이는 행동들이다. 그리고 그런 그의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더 나아가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화자는 작품 서두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다른 필경사들에 대해서라면 그 인생 전체를 서술할 수 있겠지만, 바틀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에 대해 완전하고도 만족스런 전기를 쓸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sup>22)</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바틀비를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존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는 바틀비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그에 대한 이해가 “일차 자료에 근거하지 않을”(except from the original sources)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작품 마지막에 나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과 더불어 그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그 일차 자료로 제시한다. 전자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비록 화자의 시각에 의해진 한 걸러진 것이긴 하지만 후자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는 의미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sup>23)</sup> 따라서 비록 바틀비의 삶 전체를 재구성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사무실 안에서의 삶에 대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바틀비를 이해할

22) Melville (1987), p. 13.

23) 사실 화자의 증언은 역사학자들이 정의하는 일차 자료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 있다는 것을 화자는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화자가 독자에게 제시하는 일차 자료는 바틀비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바틀비가 작품에 등장하기 전 그는 그의 사무실의 배치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조직의 기존 멤버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는 단순히 배경묘사를 하거나 포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편 소설을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서 멜빌이 “우선 [적당한] 시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관점과 관계 안에서 그의 대상을 바라보기”<sup>25)</sup> 위한 것만은 아니다. 화자는 사무실 공간과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직원들에 대한 묘사가 “주요 인물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되기”(indispensable to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chief character) 때문이라고 밝힌다.<sup>26)</sup> 다시 말하면 바틀비는 사무실 내의 존재,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컨텍스트를 통해 적절한 이해가 가능한 존재라는 뜻이다. 사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사무실 내로 한정되어 있고 사무실 바깥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이 소설의 기반이 사무실과 이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지점에서 사무실과 조직, 조직 내에서의 인간을 연구하는 조직 행동론과 이 작품이 만나는 지점이다.

조직행동론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조직 내의 개인 혹은 집단의 행위를 연구하는 학제적 학문으로 리더십, 동기, 조직자체, 관료적 절차, 조직의 의사결정의 세부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리더십과 동기이론들은 문학연구에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이론 중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우스(Robert House)의 ‘경로-목표 이론’을 통해 『바틀비』의 화자인 변호사가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sup>27)</sup> 이를 통해 그가 스스로 강조하는 ‘신중함’(pru-

24) Melville (1987), p. 13.

25) Fogle (1960), p. 8.

26) Melville (1987), p. 13.

dence)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랜(George Bearnard Graen)과 스캔두라(Terri A. Scandura)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이론(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이하 LMX이론으로 표기)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sup>28)</sup>

LMX이론은 1970년대 이후 리더십이론의 주류를 형성해 온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리더십이론들이 가졌던 기본 가정, 즉 한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집단으로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대한다는 가정을 부인하면서 제시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조직 내에서 리더와 한 명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 즉 '양자적 관계'(dyadic relation)에 집중하여 한 리더가 한 구성원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 이론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조직에 들어 온 새로운 구성원(많은 경우 부하직원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리더)이 조직에 적응해 가는 과정, 특히 리더가 구성원을 도와 조직에 흡수되도록 돕는 과정이나 조직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리더와 구성원이 그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sup>29)</sup>

그랜과 스캔두라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파악한다. 역할취득(role taking), 역할형성(role making), 역할발전(role routinization). 이 세 단계는 일반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발생하지만, 때로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리더가 구성원의 비일상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역할취득 단

27) Robert J. House (1996),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Lessons, Legacy, and a Reformulated Theory," *Leadership Quarterly* 7.3 ; Robert J. House (1971) "A Path 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3; Robert J. House and Terence R. Mitchell (1974),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3.4.

28) George Bearnard Graen and Terri A. Scandura (1987), "Toward a Psychology of Dyadic Organizing,"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9.이다.

29) Graen and Scandura (1987), p. 176.

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는 일종의 테스트 단계(sampling process)로서 리더가 구성원이 가진, 업무와 연관된 재능을 발견하고 그 구성원이 그 업무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일을 수행해 보도록 리드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매개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과정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특정한 업무를 권유함으로써 시작된다. 다음 단계인 역할형성에서는 역할취득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문제 상황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각자 어떻게 행동할지를 발전적으로 탐구하는”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된다.<sup>30)</sup> 마지막 단계인 역할발전 단계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일상화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리더가 성공적으로 구성원과의 관계를 설정했음을 의미하고,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중심에 있는 리더와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리더와 ‘내 집단 관계’, 다시 말해 조직의 핵심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리더가 해당 구성원과 관계 맺기를 포기한다. 만약 리더가 포기하게 된다면 그 구성원은 리더와 ‘외집단 관계’, 즉 리더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의 핵심에서 밀려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다.

「바틀비」에서 화자가 작품 초반에 섬세하게 재구성하는 사무실의 모습과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의 특징들을 LMX이론으로 살펴볼 때 화자가 던지는 메시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간략한 도입부분이 끝난 후, 화자는 “우선”(Imprimis)이라고 시작하는 소설의 세 번째 문단부터, 화자 자신, 사무실, 직원들 순으로 소개한다. 화자의 자기소개에서 특징적인 것들 중 하나는 자신을 변호사라기보다는 비즈니스맨이자 리더로 소개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최고의 부자이자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30) Graen and Scandura (1987), p. 181.

이었던 애스터(John Jacob Astor)와 자신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자신의 장점은 조직의 리더에게 필수적인 현명함(prudence)과 방법론(method)이다.<sup>31)</sup>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한 직후 화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묘사한다. 이 사무실은 당시 미국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던 월가에 있다. 건물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의 양쪽 창문 바깥이 벽으로 둘러 싸여 있고, 사무실 내부에는 또 하나의 벽(비록 접이식 간이문(folding doors)이긴 하지만)이 있다.<sup>32)</sup> 이 작품에 나오는 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sup>33)</sup> 경영학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경영학의 연구들은 그간의 해석에 의문을 던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방 한 가운데 설치된 접이식 간이문을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는 같은 크기의 공간 내에서 벽(혹은 파티션)의 수가 적을수록 직원들의 내적 동기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그 해석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sup>34)</sup>

LMX이론으로 볼 때 사무실을 둘러싼 벽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폐쇄적이고 완결된 하나의 조직임을 상징하는 한편, 접이식 간이문은 그 조직 내의 리더인 화자와 구성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다시 말해 조직 내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31) 'method'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체계성(systematic way)이나 논리적인(logical), 혹은 질서정연함(orderli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개된다. 이는 경영자에게 중요한 자질이다.

32) Melville (1987), p. 14.

33) 이에 관한 대표적인 글은 다음 두 글 참조: Leo Marx (1953), "Melville's Parable of the Walls," *Sewanee Review* 61. Graham Thompson, "Dead Letters!... Dead Men?: The Rhetoric of the Office i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4.3, pp. 395-411.

34) Greg R. Oldham and Daniel J. Brass (1979), "Employee Reactions to an Open-Plan Office: A Naturally Occurring Quasi-Experi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2, p. 281.

수 있다. 더 나아가 접이식 간이문으로 나뉜 두 공간은 단순히 리더와 구성원들을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sup>35)</sup>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있는 쪽의 공간은 사무실 내에서 리더인 화자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핵심에 속하는 자들의 공간인 반면, 나머지 다른 공간은 조직의 핵심에 들지 못하고 외부로 밀려난 자들의 공간인 것이다. 이것은 터키(Turkey), 니퍼스(Nippers), 진저 너트(Ginger Nut), 이 세 명의 직원에 대한 묘사에 잘 드러나 있다.

사무실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세 명의 직원의 특징은 업무 부적합성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이들은 리더인 화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더 나아가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직원들이다. LMX이론식으로 표현하자면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교환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 터키나 니퍼스는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고 진저 너트는 아직 어릴 뿐만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먼저 터키를 보자. 터키는 오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직원이다. 일처리에 빈틈이 없고 필사도 깔끔하며 매우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12시가 지나면 돌변한다. 시간이 갈수록 쉽게 흥분하고 불안정하며, 업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게다가 (비록 경제적인 궁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사무직(다시 말하면 화이트칼라) 직원으로서 사무실에서의 복장규정이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갖추지 못한 직원이다. 리더인 화자는 그런 터키와 대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대표님,” 이 경우에 대해 터키가 말했다. “저는 제가 대표님의 오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가 하는 것은 단순히 종대를 모으고 배치하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오후에는 제가 그들에 앞장서서 용감하게 적을 공격합니다. 이렇게요!” 그러고는 그는 자로 맹

35) Melville (1987), p. 19.



렬하게 찢러댔다.

“그런데, 터키, 그 얼룩들 말이야.” 나는 넌지시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머리카락을 보세요.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흰 머리를 생각하면 따뜻한 오후에 얼룩 한 두 개 남기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비록 얼룩을 좀 남긴다 해도—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대표님. 우리 둘이 함께 늙어가고 있잖아요!”<sup>36)</sup>

이 대화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LMX는 아니다. 작품 서두에서부터 이미 화자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LMX를 포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LMX가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매우 특수한 소통이라고 볼 때, 일반적인 의미의 대화는 특수한 의미의 소통인 LMX가 기본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랜과 스캔두라에 따르면 LMX의 첫 단계인 역할취득 단계는 부탁, 요구, 임무할당 등의 형태로 리더가 원하는 역할을 구성원에게 전달함(sent role)으로써 시작된다. LMX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 필수적이다.<sup>37)</sup> 소설에서 화자인 리더가 그의 요구(혹은 부탁)를 전달하지만 터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조직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리더가 시작한 대화는 터키의 거부로 실패한다. 이 장면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그래서 리더인 화자가 터키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이는, 비록 터키가 스스로를 화자의 오른팔로, 즉 내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외집단에 속한 자로서 화자와는 다른 공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후에 화자가 바틀비에게 건물을 떠날 것을 마지막 막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한 이후 며칠 간 사무실을 비우고 도피여행을

36) Melville (1987), p. 16.

37) Graen & Scandura (1987), pp. 180-182.

떠났을 때 그가 사무실의 모든 일을 맡긴 것은 터키가 아니라 니퍼스였다.<sup>38)</sup>

그렇다고 니퍼스가 나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터키와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는 오전 업무에 터키보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모를 보인다. 비록 12시 이후로 상황이 좋아지긴 하지만 하루의 절반을 비효율적인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리더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업무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자는 그와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화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두 직원이 동시에 비효율적이 되지 않고 상보적 관계에 있는 것을 다행히 여길 뿐이다.

바틀비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등장한다. 형평법 법원 주사(Master in Chancery)의 자리를 차지한 후 문서 필사업무의 급증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에 추가한 구성원이 바틀비이다. 그에 대한 화자의 첫 인상은 “창백하게 깔끔하고 측은하게 품행이 방정하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쓸쓸해 보이는”(pallidly neat, pitifully respectable, incurably forlorn)<sup>39)</sup> 젊은이였다. 이 모습은 터키의 단정치 못함과 니퍼스의 복잡한 사업관계(정치적 관계 포함)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구성원이 조직에 들어 왔다는 것을 뜻하며,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는 어쩌면 LMX의 관계가 가능할지 모르는 인물의 등장인 것이다. 화자의 그런 평가는 바틀비가 작업할 자리의 배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나는 바틀비를 접이식 간이문 바로 옆 내가 있는 쪽 구석에 자리를 할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이 조용한 사람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방의 이쪽 편에

38) Melville (1987), p. 42.

39) Melville (1987), p. 19.

있는, 원래는 어떤 더러운 뒷마당과 벽돌들이 있던 바깥쪽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그 후에 지어진 건물들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빛이 들어 올 뿐 거의 볼 것이 없는, 작은 창문 바로 가까이 그의 책상을 두었다. …… 더 만족스러운 배치를 위해 나는 높은 초록색 접이식 칸막이를 구입해서, 바틀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서도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했다.<sup>40)</sup>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화자는 바틀비를 접이식 간이문의 화자 쪽 공간에 위치시킨다. 이는 바틀비를 내집단 관계가 가능한 구성원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내집단 관계에 있는 직원이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경영해 왔던 화자로서는 바틀비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꿈꿨을지도 모른다.

조직에 합류한 바틀비는 화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는 기존 직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업무 집중도와 능력을 보여준다.

처음에 바틀비는 엄청난 양의 필사작업을 했다. 마치 뭔가를 필사하는 것에 오랫동안 굶주리기라도 했다는 듯 그는 내 문서들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처럼 보였다. 소화시키기 위해 잠시 멈추는 일도 없었다. 햇빛과 양초 빛에 의지하여 필사했고, 밤낮없이 계속 작업했다. 그가 유쾌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기만 했다면, 당연히 그가 일에 전념하는 것을 기뻐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창백하면서도 기계적으로 계속 써나갔다.<sup>41)</sup>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직원으로서의 바틀비는 화자에게 터키와 니퍼스의 단점을 전혀 갖지 않은, 가능성이 많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는 바틀비가 더 완벽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 리더인 자신과 소통 및 팀워크를 이루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점차 보완해

40) Melville (1987), p. 19.

41) Melville (1987), pp. 19-20.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는 바틀비의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화자가 전에 없었던 본격적인 LMX를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기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LMX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새로운 구성원이 조직에 들어 왔을 때나 새로운 업무(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LMX를 시작한다. 바틀비의 경우에는 그 전자이다. 이 경우에는 LMX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그 구성원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리더와 내집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함과 동시에 그런 의도를 구성원에게 소통하는 것이다.

일이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따금 짧은 문서를 비교 검토해야 할 때는 터키나 니퍼스를 불러서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곤 했다. 바틀비를 내 근처에 둔 이유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였다. 그가 나와 같이 일한 지 삼일 째 되는 날, 그가 직접 필사한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 전이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있던 작은 일을 서둘러서 끝내야 해서 나는 다짜고짜 바틀비를 불렀다.<sup>42)</sup>

그동안 이 일을 해 왔던 터키와 니퍼스 대신 바틀비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속화하기 위해 바틀비의 자리를 가까이 배치했다는 설명은 이 장면에서 시작된 LMX가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의 숙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 관계의 형성도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준다. 어쨌든 문서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 바틀비에게 그 일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리더는 역할취득의 첫 단계를 시작한다. 이 하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화자와 바틀비의 거리와 팀웍의 형태가 테스트되고(역할취득), 그리고 만약 그것에 성공하면 다른 여러 일들을 통해서 둘만의 관

---

42) Melville (1987), p. 20.

계가 만들어지며(역할생성) 결국 역할발전의 단계, 즉 조직에 완전한 동화이고<sup>43)</sup> 그 조직의 핵심이 되는 것이 화자의 구상이었는지 모른다.<sup>44)</sup>

LMX관계로의 요청은 구성원을 조직의 핵심, 리더의 측근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은 구성원에게는 일종의 특권이다. 실제로 그랜과 스캔두라에 따르면 리더와 성공적인 LMX관계를 맺었던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후에 조직 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빨리, 그리고 높이 승진했다.<sup>45)</sup>

19세기 중엽 미국이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자본주의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자본가들과 함께 사무직 직원들(clerks)이었다.<sup>46)</sup> 러스키(Brian P. Lusky)에 의하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애매한 상태로서 사무직은 그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관문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사무직 직원으로 그들의 경력을 시작했다.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욕구가 매우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끈기 있게 자기향상, 자기발전, 자기만족을 추구했다. …… 많은 다른 미국 백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끊임없이 좋은 기회를 찾아 다녔다.”<sup>47)</sup> 따라서 사무직 직원 계층에 속한 바틀비가 화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틀비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는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감벤은 이 표현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

43) 화자가 바틀비에게 두 번째 협업을 요청했을 때 그는 “나는 바틀비가 이 흥미로운 그룹[즉 기존의 조직]에 합류하도록 그를 불렀다”(21)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44) Melville (1987), p. 21.

45) Melville (1987), pp. 186-189.

46) 소설의 화자도 직원들을 이 단어로 부른다. “my three clerks”(p. 15 참조).

47) Lusky (2010), p. 2.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해석하지만, 적어도 화자와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 표현은 “완전히 사절하는”(blankly decline) 것, 혹은 “그가 딱 잘라서 거절했다”(he would refuse point-blank).<sup>48)</sup> 표현과 태도는 매우 정중했지만 리더인 화자의 요청을 단호한 거절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화자의 바틀비에 대한 일련의 요구에 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바틀비 자신이 필사한 문서의 대조작업과 다른 사본의 대조작업 등 업무와 관련된 화자의 요구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후 바틀비와 대화를 시도하는 화자의 접근을 거부한 뒤 급기야 필사작업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른다.

바틀비는 왜 화자와의 LMX관계를 거부했을까? 그랜과 스캔두라는 LMX관계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우선 리더가 구성원들에 대한 상벌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LMX관계로 이끌 수 있는 요소(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등)와 함께 구성원의 재능과 가능성을 잘 감지하고 그것을 필요한 업무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주어진 업무를 뛰어 넘는 어려운 과업이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이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리더가 구성원에게는 신뢰감과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은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와 리더가 주는 보상(인정, 승진, 돈 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LMX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틀비」에서 화자는 조직 내에서 전권을 가진 소유주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는 거의 없다. 문제는 바틀비에게 있다. 그에게 잠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강한(아니, 미약한 정도라도) 동기가 없

---

48) Melville (1987), p. 25, p. 32.

다. 조직의 리더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에 전혀 반응이 없고, 나중에 사무실을 떠날 것을 요구하면서 화자가 책상 위에 남겨둔 적지 않은 “돈을 건드리지도 않는다.”<sup>49)</sup> 왜 그에게는 당시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출세에 대한 강한 동기가 없는 것일까?<sup>50)</sup> 사실 바틀비가 왜 거부하는가에 대한 답은 작품에서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거부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틀비는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LMX이론에서 본다면, 바틀비는 분명히 화자의 LMX시도를 거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바틀비를 기존의 조직체계 내부로, 더 나아가 조직의 핵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바틀비에게 강조하는 사무실의 ‘관례’(usage)라는 단어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바틀비에게서 처음 거절을 당했을 때는 경황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거절당했을 때 화자는 바틀비에게 사무실의 ‘관례’에 대해서 설명한다.

“왜 거부하는 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자네가 필사한 것들이네. 한 번 검토에 자네의 문서 네 개를 처리하는 것이니 그건 자네에게 일을 줄여주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야. 모든 필경사들은 자기 필사본의 검토의무가 있어. 그렇지 않나? 말해보게. 대답해봐!”

.....

---

49) Melville (1987), p. 35.

50) 화자는 바틀비가 당시 대부분의 사무직 종사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의아해한다. “..... 이따금 자신만의 시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나는 그가 독서하는 것—아니, 심지어 신문을 읽는 것도 보지 못했다”(28).

“그렇다면 내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이군. 일반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르는 요청인데도 말이야.”<sup>51)</sup>

LMX관계의 1차적인 목적이 새로운 구성원이 기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잘 처리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화자가 ‘관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바틀비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LMX관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 번의 거절 후 대화를 시도한 화자가 바틀비에게 간청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틀비, 그렇다면 자네의 개인사를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네. 하지만 친구로서 간청하는데 이 사무실의 관례들에 한해서는 따라주게.”<sup>52)</sup>

그 단순한 요청을 바틀비는 단호히 거절한다. 그 뿐만 아니다. 바틀비는 사실상 (비즈니스) 조직(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사무실 관례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그는 화자가 조직의 리더로서 내린 명령(요청, 탄원을 포함하여)을 모두 거절한다. 필사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틀비 본인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사실을 화자에게 통보할 뿐이고,<sup>53)</sup> 화자가 떠날 것을 요구하며 정한 날짜도 바틀비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조직의 권위와 조직의 필수 요소인 위계질서(hierarchy)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사무실 동료인 터키와 니퍼스는 종종 같이 점심식사를 하지만 그는 점심시간에 그들과 같이 식사하러 나가지 않는다. 그들과 직장 동료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는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화자가 우연히 사무실

51) Melville (1987), pp. 21-22.

52) Melville (1987), p. 30.

53) “왜 필사작업을 하지 않는지 그에게 묻자 그는 더 이상 필사작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Upon asking him why he did not write, he said that he had decided upon doing no more writing. 31).



에 들렀을 때였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일요일이었다는 것, 즉 비즈니스의 중심인 월가에 비즈니스가 완전히 멈추고 브로드웨이를 거닐며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날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빈곤은 컸다. 하지만 그의 고독, 얼마나 끔찍한가! 생각해보라. 일요일, 월가에는 아무도 없다. 매일 밤 역시 거기는 텅 비어 있는 곳이다. 주중 낮에는 바쁜 일과 생명으로 시끄러운 이 건물도 밤에는 완전히 텅 빈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이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버려진 곳이다.”<sup>54)</sup> 비즈니스가 완전히 멈춘 그때 바틀비는 단 한 번 나갔을 뿐이다. 덧붙여 화자는 바틀비가 비즈니스가 멈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한다. “바틀비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일을 함으로써 그날[즉, 일요일]의 특성[즉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범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못하게 했다.”<sup>55)</sup> 바틀비는 조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sup>56)</sup> 그런 그의 존재는 조직 구성원과 조직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화자는 결국 바틀비를 해고할 결심을 하게 된다.<sup>57)</sup>

### 3. 바틀비의 저항 대상

지금까지 LMX이론을 통해서 『바틀비』를 분석해 보았다. 이 이론에 의하면 리더는 바틀비를 비즈니스 조직 안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지만 바틀비는 그 초대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I prefer not to)는 마치 “이 비즈니스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54) Melville (1987), p. 27.

55) Melville (1987), p. 27.

56) 바틀비는 조직이라는 특성이 특히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Lee (2014), pp. 173-189 참조.

57) Melville (1987), p. 31.

것이 더 좋겠습니다”(I prefer not to join this business organization)라는 표현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지점이 기존의 경제학적(특히 맑스주의적) 해석과의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다.

작품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해석할 단서를 몇 개 남겨 두었는데, 그것들을 통하여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우선 바틀비는 원래 사무실에, 아니 더 나아가 화자와 함께 있었던 인물로 제시된다. 바틀비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화자는 바틀비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어느 아침 움직임이 없는 젊은이가 내 사무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sup>58)</sup>고 말한다. 그는 처음부터 이미 사무실 내부에 들어와 있는(혹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존재이고, 다른 면에서 본다면 바틀비가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화자가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발견된 바틀비를 화자는 이후 특이하게 묘사한다. 그는 “움직임이 없었고”(motionless), “환영”(apparition)이고 “유령”(ghost)이며 그가 움직일 때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타났다”(noiselessly slid into view). 물론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없는 바틀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지만 그 비유가 상당히 일관된다. 앞에서 LMX이론을 통해 살펴본 바틀비의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그는 비즈니스와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경영조직을 거부하는 일종의 유령인 셈이다.

그 유령은 화자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필사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한 바틀비에게 사무실을 떠나라고 통지했음에도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에게 화자가 질문한다.

“자네는 나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나는 갑작스런 격노에 사로잡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나는 대표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 quit

58) Melville (1987), p. 19.

you)라고 부드럽게 부정어(not)를 강조하면서 그는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 머무는 건가? 월세를 내나? 세금을 내나? 아니면 이 건물이 자네 건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sup>59)</sup>

후에도 바틀비는 화자를 떠나기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의지를 화자에게 분명하게 한다.<sup>60)</sup> 그렇다면 왜 그는 화자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맥락과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화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다. 바틀비가 갑자기 필사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통보 한 직후에 화자는 그 이유를 묻는다. 그에 대해 바틀비는 “대표님 자신이 그것을 모르세요”(Do you not see the reason for yourself)<sup>61)</sup>라고 애매하게 답한다. 이 말은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질문이지만, 본문에는 의문부호가 없다. 마치 당연히 알고 있는 것(혹은 알아야 할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투로 들린다. 이 반응에 화자는 황급히 바틀비가 그간 너무 열심히 일해서 눈이 나빠져서 쉴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둘러대고 만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바틀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자와 그런 화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바틀비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화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화자는 작품의 첫 문장에서 자신을 “약간은 나이가 든 사람”으로 소개한다.<sup>62)</sup> 약 30년 정도 변호사로 일해 왔고 나이는 육십에 가까운 터키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다. 그러니 최소한 1800년 이전에 태어나서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이 시기에 미국인들은 큰 변화를 경험한다. 정

---

59) Melville (1987), p. 35.

60) Melville (1987), p. 38.

61) Melville (1987), p. 32.

62) Melville (1987), p. 13.

치적으로는 잭슨식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노예무역이 금지되면서 노예의 가치가 상승하고 동시에 목화재배가 유행함에 따라 노예제도가 공고화되면서 사회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농업과 상업 중심의 경제가 점차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되어갔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지만 이미 전반기에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 큰 변화의 흐름 하나가 기업의 발달, 경영 조직의 전문화 및 강화였다.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인 뉴욕 한 가운데서 변호사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설의 화자이다.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처세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사회가 경험하는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그 기회를 잡고 흐름을 타는 데 능숙한 사람이다.<sup>63)</sup> 맑시즘적 해석을 시도한 프랭클린(Bruce Franklin)이 말한 대로 화자는 “이 빈 종이짜가리들을 자본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문서들—채권, 부동산 소유권 증서, 저당권 증서—로 바꾸는 사람”이다.<sup>64)</sup> 즉 화자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변환 속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이고 나아가 19세기 후반 금융자본주의의 발흥에도 이미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수완 좋은 사업가이다.

화자는 일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데만 몰두하는 그런 자본가 계급 혹은 그 계급의 하수인은 아니다.<sup>65)</sup> 프랭클린의 경우 “화자는 사탄적인 존재는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불친절한 사람도 아니다”고 평가함으로써 그 점은 인정하지만 고용주로서 “사무실 직원들을 그들에게 할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objects)으

63) 화자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Lee (2014), pp. 181-183 참조.

64) Bruce Franklin (1976), “Herman Melville: Artist of the Worker’s World,” in *Weapons of Criticism: Marxism in America and the Literary Tradition*, ed. Norman Rudich, Palo Alto, CA: Ramparts, p. 300.

65) 김은형(2012), “‘언덕 위의 도시’의 구조적 한계: 『필경사 바블비, 월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9.3 참조.

로 여긴다”고 주장한다.<sup>66)</sup> 화자가 고용주이고 경영자로서 그가 속한 조직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프랭클린이 주장한 대로 그들이 그에게 ‘유용한(valuable) 존재들인가를 늘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 그것이 이 작품의 핵심인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화자는 당시 자본가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스터를 초반에 자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간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부를 축적했고 그와 사업관계에 있었던 애스터를 칭송하며 그의 유명세에 기대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그가 동시대인들에게 ‘늙은 구두쇠’(Old Hunks) 혹은 ‘늙은 수전노’(Old Skinflint)로 불리며 “1848년에 죽었을 때 뉴욕에서 가장 중요의 대상이었던” 그를 흠모하기만 했을지는 의문이다.<sup>67)</sup> 애스터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자본가로서의 삶, 혹은 자본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기업 경영의 변화에 일말의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가 확장되면서 조직을 더 키워야했던 화자는 바틀비를 만난다(혹은 발견한다). 그가 발견한 바틀비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같이 발달해 가는 비즈니스 조직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는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그 유령은 “마치 폐허가 된 성전에 남아 있는 마지막 기둥”<sup>68)</sup>이나 파괴된 카르타고의 잔해를 바라보는 마리우스,<sup>69)</sup> “대서양 한 가운데에 있는 난파선의 한 조각”<sup>70)</sup>같은 존재이다. 즉, 이제는 없어져가는 과거의 마지막 남은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틀비가 상징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그것이 가져온 새로운

66) Franklin (1976), p. 300.

67) Foley (2000), pp. 92-93.

68) Melville (1987), p. 33.

69) Melville (1987), p. 28.

70) Melville (1987), p. 32.

경영 조직, 비즈니스 방법, 그리고 경영자와 직원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 밀려나는,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그 무엇, 또한 작업장 혹은 조직 안에서의 관계로 대변되는 당시 미국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과거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LMX이론은 바틀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바틀비가 비즈니스 조직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런 바틀비는 이 이야기의 화자의 내부에 있는, 자본주의로 인해 사라져가는 그 무엇(들)에 대한 미련/향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실 화자는 바틀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로 인해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코 그를 냉혹한 자본가나 경영자의 모습으로 대하지는 않는다. 바틀비가 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마다 그는 급한 일부러 처리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에게 관용을 베푼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그에 대한 관용의 본질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가 바틀비에 대해서 “형제적 비애”(fraternal melancholy)<sup>71)</sup>를 느끼고 있으며 “바틀비에게는 뭔가가 있어서 이상하게도 나를 무장해제할 뿐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동정적으로 만들고 찢찢매게 했다”(there was something about Bartleby that not only strangely disarmed me, but in a wonderful manner touched and disconcerted me)고 시인한다.<sup>72)</sup> 화자가 변화하는 조류의 편승자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 가는 경영 환경과 조직문화 및 그 속에서의 구성원과의 관계의 변화를 따라가기를 원

71) Melville (1987), p. 28.

72) Melville (1987), p. 32.

하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전의 삶의 모습과 가치에 대한 향수를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과거의 것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바틀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즉 과거의 것과 완전한 결별)은 결국 비즈니스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바틀비를 품으려고 했던 화자는 “마침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필요 때문에 [바틀비에 관한] 다른 고려(혹은 배려)를 포기해야만 했다”(At length, necessities connected with my business tyrannized over all other considerations).<sup>73)</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조차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제거하기를 원해왔던 그로부터 내 자신을 억지로 떼어내”(I tore myself from him whom I had so longed to be rid of)야만 했다.<sup>74)</sup>

화자가 포기한 바틀비는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화자가 떠난 건물을 유령처럼 떠돌던 그를 결국 경찰이 ‘무덤들(Tombs)’이라고 불리는 교도소로 보낸다. 이상하게도 그토록 완고하던 바틀비가 ‘무덤들’로 보내질 때는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특별대접을 받으며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바틀비 자신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덤이라고 불리는 교도소가 개인들이 철창으로 분리되어 조직을 이룰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화자의 사무실과는 대조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을까? 그곳에서 바틀비를 기다리는 것은 작지만 그가 독점할 수 있는 땅과 그 위의 풀, 그리고 고대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벽이었다. 어찌 보면 바틀비에게 가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곳에서조차 돈벌이(비즈니스)를 하는 음식조달자(grubman)가 제공하는 음식을 끝까지 거부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sup>75)</sup> 죽은 바틀비를 보면서 그

73) Melville (1987), p. 32.

74) Melville (1987), p. 39.

75) 여기서 바틀비는 화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I want nothing

가 “세상 임금들과 의사(義士)들과”(with kings and counsellors)<sup>76)</sup> 함께 편히 쉬고 있다고 혼잣말로 되뇌는 것이나 작품의 마지막에 “아 바틀비여! 아 인간성이여!”라고 한탄하는 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 미국 역사의 분수령인 남북전쟁을 앞둔(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사회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멜빌의 한탄이 아닐까?

---

to say to you)라며 그와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확인한다(43).

76) Melville (1987), p. 45.



## 참고문헌

### 【자 료】

- Melville, Herman (1987), "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In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1839-1860*, eds. Harrison Hayford, Alma A. MacDougall, G. Thomas Tanselle and others, 13-45,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 \_\_\_\_\_ (1849), *Redburn: His First Voyage*, New York: Harper & Brothers.
- \_\_\_\_\_ (1847), *Omoo: A Narrative of Adventures in the South Seas*, New York: Harper & Brothers.

### 【논 저】

- 김은형(2012), 「“언덕 위의 도시”의 구조적 한계: 「필경사 바틀비: 월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근대영미소설』 19.3.
- 윤교찬(2013), 「부정과 중단의 미학—아감벤의 바틀비론」, 『영어영문학』 26.1.
- 이광진(2012), 「문학과 경영학: 마크 트웨인의 『아더 왕궁의 커네티컷 양키』에 나타난 동기 전쟁」, 『영미문학교육』 16.2.
- 정진만(2012). 「“아! 바틀비여! 아! 인간이여!":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에 나타는 부정성」, 『비평과 이론』 17.1.
- 한광택(2014). 「바틀비, 근대성의 부정변증법」, 『19세기 영어권 문학』 18.2.
- 황혜령(2008). 「‘표현—기계’로서의 들뢰즈의 문학론: ‘바틀비—기능’과 ‘K—기능’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0.3.

- Agamben, Giorgio (1993. 1990), *The Coming Community*, Translated by Michael Hardt, Minneapolis,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verungen, Armin, and Stephen Dunne (2007), "'I'd Prefer Not To': Bartleby and the Excesses Of Interpretation", *Culture & Organization* 13.2.
- Fogle, Richard Harter (1960), *Melville's Shorter Tale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Foley, Barbara (2000), "From Wall Street to Astor Place: Historicizing Melville's

- 'Bartleby', *American Literature* 72.1.
- Franklin, Bruce (1976), "Herman Melville: Artist of the Worker's World", In *Weapons of Criticism: Marxism in America and the Literary Tradition*, edited by Norman Rudich, Palo Alto, CA: Ramparts.
- Graen, George Bearnard, and Terri A. Scandura (1987), "Toward a Psychology of Dyadic Organizing",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9.
- Hayford, Harrison, William Macnaughton, G. Thomas Tanselle, and others (1987), "Historical Note", In *The Piazza Tales and Other Prose Pieces: 1939-1860*, edited by Harrison Hayford, William Macnaughton, G. Thomas Tanselle and others, Evanston and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and The Newberry Library.
- House, Robert J. (1996),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Lessons, Legacy, and a Reformulated Theory", *Leadership Quarterly* 7.3.
- \_\_\_\_\_ (1971), "A Path 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6.3.
- House, Robert J. and Terence R. Mitchell (1974), "Path-Goal Theory of Leade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Business* 3.4.
- Lee, Kwangjin (2014), "What Does Bartleby Prefer Not To?: A Reinterpretation of Bartleby's Resistance with Organizational Theories",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18.2.
- Lusky, Brian P. (2010), *On the Make: Clerks and the Quest for Capital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rx, Leo (1953), "Melville's Parable of the Walls", *Sewanee Review* 61.
- Oldham, Greg R. and Daniel J. Brass (1979), "Employee Reactions to an Open-Plan Office: A Naturally Occurring Quasi-Experi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2.
- Plumstead, A. W. (1966), "Bartleby: Melville's Venture into a New Genre", *Melville Annual 1965, a Symposium: Bartleby the Scrivener*, edited by Howard P. Vincent, Kent: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Smith, Daniel W. (1997), "'A Life of Pure Immanence': Deleuze's 'Critique Et Clinique' Project", Introduction In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edited by Gilles Deleuz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hompson, Graham (2000), "'Dead Letters!... Dead Men?': The Rhetoric of the Office i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4.3.
- Vincent, Howard P., ed. (1966), *Melville Annual 1965, a Symposium: Bartleby the Scrivener*,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Weaver, Raymond M. (1921), *Herman Melville: Mariner and Mystic*, New York: George H. Doran Company.

원고 접수일: 2015년 7월 5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

A Study on Bartleby's Resistance in Herman Melville's  
"Bartleby, the Scrivener-A Story of Wall Street"

Kwangjin Lee\*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by addressing to the most basic, but hitherto neglected elements of the story: business, office, leader-member relationship. It applies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 (LMX)—a theory of Organizational Behavior of Management—which analyzes the dyadic relation between leader and a new member. The narrator, the leader of his own organization, helps Bartleby, a new member, to undertake a new task that Bartleby never did before. Applying the LMX theory, this paper suggests that when Bartleby said "I would prefer not to", it means his rejection of the leader's LMX, and it also implies his rejection of business and organiz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rrator describes Bartleby as apparition or ghost, it argues that Bartleby stands for something that the American society which was changing its system to industrial capitalism lost in the process.

---

\*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